

석사학위논문

군내 장병의 자살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 장병 신상관리를 중심으로 -

2014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고동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윤기

군내 장병의 자살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 장병 신상관리를 중심으로 -

He study on causes lead to suicide of soldiers daring mission
accomplishment and prevention measures development

- Focused on Military Personnel Career Management -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고 동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윤키

군내 장병의 자살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 장병 신상관리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causes lead to suicide of soldiers daring mission
accomplishment and prevention measures development

- Focused on Military Personnel Career Management -

위 논문을 국방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고 동 진

고동진의 국방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14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군내 장병의 자살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전공
고 동 진

본 논문에서 최근 수년간 군의 병영문화개선 및 밝은 병영 운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는 장병 구타 가혹행위, 성군기 위반인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간부와 병사의 군 사망사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 장병 자살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최근 이 문제를 위한 군은 기본권 전문상담관운용 제도와 비전·그린 캠프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시행을 통한 군의 사고예방대책은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자살사고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며, 사회전체와 군인의 인권문제가 야기되는 등 해결의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자살예방을 통한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신상관리를 분석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상담과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신상관리야 말로, 근본적인 자살사고 예방책이며, 최신세대의 인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고(자살) 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크고 작은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자살사고는 군내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초급 간부에게 그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이는 항상 지휘관 책임을 통한 지휘관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복무부적응이나 자살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여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인 다차원론적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국가, 사회 군이 협력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자살사고예방 모델이 필요할 때이다.

【주요어】 군인자살, 자살예방, 군대문화, 장병 신상관리 분석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자살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자살에 대한 기본적 이해	4
1) 자살의 정의	4
2) 자살에 대한 문화	5
제 2 절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 장병의 성향	6
1) 군 조직의 특수성	6
2) 신세대 의식 성향	10
제 3 장 군 자살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12
제 1 절 자살사고 실태분석	12
1) 최근 자살사고 발생추세	12
2) 자살자의 당시 환경 분석	14
제 4 장 군 자살사고 위협요소	20
제 1 절 요소별 분석결과	20
제 5 장 군내 자살예방대책	27
제 1 절 부대외적 스트레스 해소방안	27
1) 부대외적 스트레스 감소방안	29
2) 자살예방 프로그램	30

3) 자살 우려자 식별 관리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35
4) 자살예방 지원부대 활동 강화	38
5) 부국강병의 선진군대	4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45
1) 결 론	45
2) 제 언	47
참 고 문 헌	48
ABSTRACT	49

표 목 차

[표 2-1] 군사회의 특성	7
[표 2-2] 신세대의 부정적 영향	11
[표 2-3] 신세대의 긍정적 영향	11
[표 3-4] 우리나라 자살사고 사망자 현황	12
[표 3-5] 자살사고 발생추세	13
[표 3-6] 월별 ·계절별 자살사고 발생추세(5개년)	14
[표 3-7] 자살사고 발생 시간 분석결과	14
[표 3-8] 자살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16
[표 3-9] 자살사고 자살방법별 현황	16
[표 3-10] 자살사고 자살원인별 현황	17
[표 3-11] 자살자 학력별 현황	18
[표 3-12] 자살자 성격별 현황	18
[표 3-13] 자살자 복무기간별 분석 현황	19
[표 5-14] 과정별 자살예방 교육현황	30
[표 5-15] 계급별 자살예방 교육현황	31
[표 5-16] 계급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3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군은 매년 수십명의 장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픔을 당한다. 한 병사의 자살은 부대 장병들의 사기와 단결을 저해함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비전투 손실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든 간부들이 국가와 부모로부터 24개월 동안 위임받는 우리 병사들을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지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입대할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게 만들어 사회로 환원시킬 책임이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중의 한부분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생동안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물음은 인간의 존재 가치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답게, 보람있게 삶을 영위하는 것을 누구나 원하고는 있지만, 실상 그런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 더군다나 이런 구차한 삶을 포기하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군대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살률이 일반사회의 동일 연령대의 자살률에 비해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사회 구성원들의 자살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일반 사회의 자살로 인한 부작용과 달리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흔히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들 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자살은 군대 구성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비록 자살에 원인이 군대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관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군대 조직에 그 비탄의 화살이 쏟아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군대에서 자살은 군대 사회 전체 사망자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어 다른 어느 분야보다 자살사고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비전투손실 :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자 또는 자의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적 활동과 억류로 인한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이유로써 소속부대를 이탈한 인원

아직까지 자살의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무망감과 우울증, 문제 해결능력의 결핍, 부정적인 자기 자각으로부터의 도피, 죽음에 대한 본능, 자살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자살자의 가계력, 사회구조적 측면, 자살에 대한 문화적 배경의 낮은 수준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자살 유발 요인들로 지적 되어왔다.

그러나 군대 사회의 자살 연구는 개인 내적 변인에다 일반 사회에서 격어 보지 못한 군대 생활에서의 경험, 바깥사회의 도움이 차단된 군대사회에서는 군대 구성원들과의 동화 정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자살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군내 자살사고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주어진 환경과 현재의 병사들이 가진 심리 상태의 단순한 파악만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진 심리 상태의 단순한 파악만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일반 청소년들의 자살요인에 대한 이론적 문헌조사에 의존하였고, 보조적으로 자살자들의 성장환경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군 복무부적응 요소를 연구하기 위해 제하된 군내 자살자들의 원인 분석 연구를 추가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 1장은 서론, 제 2장은 자살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3장은 군 자살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제 4장은 군 자살사고 위협요소 요소별 분석결과, 제 5장은 군내자살 예방대책 그리고 제 6장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군 조직의 특수성 및 신세대 의식 성향, 일반 자살과 군 자살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의 기초를 마련코자 분석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참고로 최근 5개년간의 군 자살사고 실태를 분석하여 군 자살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고, 제 4장에서는 자살의 위협요소별 분석과를 제시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군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위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한 후 본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비전투손실중에서도 군 복무 중 갈등과 부적응 요소들에 의한 자살한 병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신상관리를 통한 적절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육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고에 대한 분석으로 제한하였다.

군 자살사고에 대한 연구는 군 조직관리와 대 국민 관계상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과학적 분석자료 및 전문문헌 등 필자가 수집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총 5장으로 구성하였는바, 제 1장은 서론, 제 2장은 자살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 3장은 군 자살하고 실태 및 원인분석, 제 4장은 군 자살하고 예방대책 그리고 제 5장 결론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 2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군 조직의 특수성 및 신세대 의식성향, 일반 자살과 군 자살과의 관계 등을 살펴봄으로서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초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각종 자료를 참고로 초 군 5개년간의 군 자살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군 자살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였고, 제 4장에서는 군 자살하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위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후 본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특히, 장병 자살에 관한 접근 방법으로서는 사회적 여건과 자살과의 원인과 관계에 비중을 두는 사회학적인 접근 방법과 개개인의 심리를 분석하여 의식 및 무의식 상태의 미상에서 자살의 원인을 밝히고자하는 심리학적 접근방법 기타 종교 및 철학적 접근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사회학적 접근에 주로 의존 하고 기타 다른 접근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 발간된 각종 문헌과 군 수사기관에서 발간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연구방법을 택하였으며, 귀납적으로 기술하였다.

제 2장 자살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1절 자살에 대한 개념과 이해

1) 자살의 정의²⁾

자살이란 라틴어 ‘suididium’(자기살해)나 ‘sui caedere’(자신을 죽이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의는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려는 강한 의도와 그 의도한 바를 구체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기생명의 파괴이기 때문에 자기사(自己死)가 아니라 자기살인(自己殺人)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자살의 정의를 엄밀하게 따라가다 보면, 자살을 자살 그 자체의 의미로만 파악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은 당사자의 행위, 동기에서 결과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자살이란 자살행위가 성공하여 그 결과로서 죽음을 초래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이해해서 다뤄져야 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살적 행동양식으로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떠올리는 ‘자살생각’, 자발적으로 자해를 저지르게 되는 즉, 준 자살에 해당하는 ‘자살기도’, 자살 등의 개념으로 나누기도 한다.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심리적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자살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자살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자살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살을 유도하는 가장 큰 심리적 고통은 욕구의 좌절이다. 이러한 욕구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구, 해(害)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다.

2) 청소년 자살 예방할 수 있다. 김기업 등, 예술 2003.

자살에 대한 관점은 문화, 종교, 법, 사회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죄나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지며, 일부 법에서는 범죄로 보고 있다. 때로는 어떤 문화에서는 수치에서 벗어나야 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명예로운 행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종교나 명예, 삶의 의미는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개 서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자살을 부도덕한 행위로 여긴다. 서구에서는 기독교 등의 영향으로 삶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겨 범죄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아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에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여긴다. 그러나 일본의 사무라이는 자신들의 실수나 실패를 불명예로 여겨 할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사용된 가미가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도 풍습인 수티는 남편이 죽어 화장시킬 때 아내도 함께 화장시키거나,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풍습이다.

현대에는 대체로 자살을 범죄로 보지 않지만 여기에도 국가나 경우에 따른 예외가 있다. 실례로 영국에서는 1961년에 자살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자살을 재산몰수로 처벌하였으며, 이는 1961년 자살법이 제정됨으로서 사라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이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등 여섯 개 주는 자살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이중 두 주만이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 이들 두 주도 해당법률을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경향은 없으나, 군에서의 자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한 집안의 대를 끊는 범죄이면서 비난받을 행위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2) 자살에 대한 문화³⁾

자살에 대한 인류의 태도는 크게 “절대불가”와 “피동적 허용”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문화는 죽은 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인류의 자살관에 대한 과거의 흔적은 극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자살의 역사에 대해서는 시대적 구분에 의한 분석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 문화의 상황과 세계관을 염두에 두고 “자살을 금기시했던 문화”, “피동적으로 허용했던 문화”, 적극적으로 허용했던 문화⁴⁾의 3가지 문화적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자살을 금기시했던 문화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스의 한 문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살한 사람은 정식 장례를 치를 수 없었으며, 당국은 그의 손을 잘라 따로 매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자살을 피동적으로 허용했던 문화는 20세기에 들어와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종교적 도덕규범이 갖는 절대성이 와해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였는데, 이는 자살행위가 직접적으로 타인의 불행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닌 관계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허용했던 문화는 국가에서 시행되었는데, 유사 이래 국가가 자살을 공식적으로 종용하고 장려했던 적은 없었지만 특수한 목적을 지닌 집단이 자살을 공식적으로 권유한 경우는 많았다

제 2절 군 조직의 특수성과 신세대 장병의 성향⁴⁾

1) 군 조직의 특수성

군 조직에서의 자살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일반사회의 특성을 광범위성, 기능성, 개방성,

3) 김운삼 「청소년 자살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7.

4) 공만택[신세대 병사의 의식구조와 군 지휘통솔 기법], 호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5.

이질성 등을 들고 있는데 반해 군 사회는 전체사회의 일부분이지만 그 특성 면에서 볼 때 하나의 특수사회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조직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이라는 조직사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특수한 상황과 조건 밑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근대 사회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Morris Janowitz는 군 조직의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 조직이란 계급과 책임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位階的) 전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조직이 사회조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반 조직과 공통되는 성질을 일면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 사회조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이(相異)한 특수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군사회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 1〉 군사회의 특성⁵⁾

- 위계질서의 사회 : 상명하복의 계급구조
- 규율과 통제 사회 : 군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규율과 통제
- 강인한 단체성
 - 조직의 일원으로 직무 수행
 - 단결과 협동은 군 전투력 발휘 핵심요소
- 조직의 임무완수 우선 의식

< 국방부,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제」, 2013년, 제 1장, 4과 >

이상과 같은 특이한 군대생활 환경속에서 병사들은 자율적 인간성에 많은 제약을 받게되고 이 같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사고의 잠재성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병사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군 생활에 적응시켜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 생활에 익숙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육군본부, 「자살사고 예방」 2012.

가) 일반적인 특성

군 조직은 다른 사회조직에 비해 단일조직으로써는 그 규모가 대규모이며 다양하고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 조직은 일반 사회조직이나 다른 정부조직에 비해 단일조직으로서는 규모가 크고, 국가안보라는 단일의 목적을 다양한 하위조직들로 세분화되어 달성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경우에도 입대전 직업, 출신 및 성장지역, 학력, 입대동기 등 이질성이 강하다.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해 군율(軍律)을 수반하여 강제성이 선행된다. 대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규율이 매우 엄격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구성원을 강제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 군 조직의 경우 다른 어느 조직보다 명령통일과 복종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조직에 해당한다. 또한 군 조직의 목적이 전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外敵)으로부터 보호하고 평시에는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국민 지원 및 협조를 하는데 있으므로 이지적(理智的)이고 봉사적이다. 그리고 군 조직은 군 조직 자체가 스스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무기를 비롯하여 장비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공헌을 하게 되는 한편, 철저한 복종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데 지휘체계가 명백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전쟁에서 승리라는 단일 목표를 위해서는 일사분란(一絲紛亂)한 지휘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나) 집단적 조직으로의 특성

명령에 의해 행동하는 집단, 즉 지휘관과 부하와의 관계가 중시되는 집단이다. 대규모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계급을 매개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써 계급별로 주어진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 계급 집단이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계층적 조직에서는 계급에 따라 지휘역할이 부여되는데 군 조직도 대규모 관료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 역할, 지휘, 권한이 부여되고 이를 이용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한편 다른 조직에 비해 구성원의 이질성이 강한 조직이지만 대규모 조직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동일한 규칙 및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통솔이 불가능하고 조직의 응집력이 약화되며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필승의 신념이 약화된다.

다) 정신적인 면의 특성

군 조직은 지휘관과 부하간의 긴밀한 심적유대가 형성되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는 군 조직 목표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지휘관과 부하가 일체를 형성하여 응집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곤란하게 된다. 군 조직이 상명하복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명령복종 관계이다. 그리고 지휘관과 부하간에서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상호 신뢰하여야 하는 집단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속에서 생사를 같이 해야만 사기가 향상되고 목표달성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진다. 이 조직은 국방이라는 특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집단보다도 단결을 필요로 하는 데서 연유한다.

라) 윤리적인면의 특성

군 조직은 절대 복종하고 질서 앞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을 덕으로 삼는 단체이다. 대규모 조직을 관리하는데 규칙, 규범만으로는 부족하다.

법규에 의한 지배에 앞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명령·복종관계와 책임 확보체계가 이루어질 때 조직의 질서는 유지되고 사기도 향상된다.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단체로서 군은 국민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이를 이탈하는 행동은 절대 금지된다. 이는 정신적인 면의 특성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은 국가에만 충성하여야 하고 다른것에 대해 관심을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단체로서 군의 명예는 바로 군 조직의 사기와 직결된다. 군의 사회적 평가가 높기 위해서는 군 조직의 지향이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일관될 때 가능해진다. 군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높을 때 군 조직의 사기는 양양(昂揚)된다.

이와 같이 군 조직은 실로 복잡 다양한 단체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단체이다. 군 조직은 조직 중에서도 대규모 조직인 동시에 국가 헌법에 의거한 공식조직 구조에 속한다. 또 인간사회에는 많은 조직이 존재하지만 군과 같이 특수한 조직이 흔치 않으며 조직 자체부터가 기구, 기능, 임무, 권한 등이 일반사회의 보편적인 조직과는 그 특성이 판이(判異)한 것이 많다.

2) 신세대 의식 성향

가. 신세대의 의미

“신세대”라는 용어는 광고계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신행 조어로서 1988년이후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 젊은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는데, 이들을 미국에서는 “X세대”, 프랑스에서는 “데드부줄 : 불평불만주의자”, 일본에서는 신인류,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N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다시 말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핵가족제도에 의한 과잉보호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으로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만을 추구하여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서 정신적으로 나약한 80~90년대 이후 출생자라고 할 수 있다

나. 신세대 유입이 군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살펴본 신세대 의식과 행동성향을 지닌 신세대들이 군에 유입되므로 이들이 병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분명한 사실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 표 2 - 2 > 신세대의 부정적 영향

-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집단정신이 미약
- 강한 자기표현으로 상급자와 갈등 내재
-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대한 강한 반발과 자유분방한 사고로
군 계급의식 및 조직체계에 대한 거부 의식 팽배
- 인내력 부족으로 자살 및 폭행 등 예상치 못한 악성사고 요인 잠재

< 국방부,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제」, 2013년, 제 1장, 4과 >

반면 긍정적 영향으로는

< 표 2 - 3 > 신세대의 긍정적 영향

- 자기성취 및 개인적 자부심이 강해 개인 의사표현이 분명
- 공평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동기유발시
참여도나 책임의식이 강하게 표출
-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자세를 가지며, 적응이 빨라 컴퓨터
운용 및 첨단장비 운용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방부,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제」, 2013년, 제 1장, 4과 >

이처럼 2005년도 이후 군 조직에 유입된 신세대 장병들은 기성의 지휘관(자)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지휘관(자)의 구태의연한 지휘방식과 리더십은 일상적인 부대활동이나 힘든 훈련 등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야기하고, 점차 누적되어온 지휘관(자)과 피지휘관(자)의 의식성향의 장벽은 결국 몇몇 사건으로 표출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더불어 그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제3장 군 자살사고 실태 및 원인분석

제 1절 자살사고 실태 분석⁶⁾

군 조직은 그 존재 근거 및 목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여타 조직에 비하여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행동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이는 곧 여러 유형의 사고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군 사고 가운데 자살사고를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표 3 - 4 > 우리나라 자살사고 사망자 현황

인구10만명당 자살사고 사망자 현황

구 분		'08	'09	'10	'11	'12	평균
사 회	사망자수	27	24	19.2	15.5	16.6	20
	20~29세	17	15.2	16	15.5	14.1	15.5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 12월 >

1) 최근 군내 자살사고 발생추세⁷⁾

최근 20년간 육군의 전체 사망사고는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자살사고는 절반수준으로 감소, 최근 10년간은 정체 수준인데 이는 인권신장, 의문사 조사, 출산율 감소 등 시대상황 변화로 군내 자살사고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변화(개인책임 → 부대 책임화, 단순사고 → 악성사고, 대민갈등 / 민원빈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살사고 실태 및 분석에서는 2008~20013년까지의 자살 발생추세와 '12년도 자살사고 중 계절별, 발생시간/장소별, 자살 방법, 원인별, 학력별, 성장과정, 생활정도, 성격별, 유서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6) 육군본부, 「자살사고 예방」 2012.

7) 김광기, [우울증 환자에서 자살과 DST의 관계에 관한 연구], 1992.

< 표 3 - 5 > 자살사고 발생추세(5개년)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 망	107건	103건	99건	100건	96건
자 살	53건	54건	52건	66건	68건
비율(%)	49.5	52.4	52.5	66	70.8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 12월 >

'12년도 사망자 96명중 군기사고는 70명(총기강력 2명, 자살 68명), 안전사고 26명(교통 16명, 추락충격 1명, 익사 3명, 항공사고 1명, 기타 5명)으로 전체사고에서 자살사고가 70%를 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세부적으로 신분별로는 간부 29%(20명), 병사 71%(일·이병: 41명, 상병 : 7명), 원인별로는 가정환경(24%), 염세비관(22%), 복무부적응(18%) 順이며, 수단별로는 목메어 사망(63%), 투신(18%), 총기(13%) 順으로 대다수 사망자가 군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끈(전투화, 노끈 등)을 이용한 자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자살자의 당시 환경분석

가) 월별·계절별

< 표 3 - 6 > 월별·계절별 자살사고 발생추세(5개년)

구 분		계	봄(23.5%)			여름(22.1%)			가을(36.8%)			겨울(17.6%)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11	68	2	8	6	3	6	6	11	10	4	4	3	5
	'12	66	8	8	3	5	8	2	6	7	6	4	6	3
	증감 (%)	+3.0	-75		-100	-40	-25	-200	-83.3	-42.9	-33.3		-50	+66.7
현역	'11	68	2	8	6	3	6	6	11	10	4	4	3	5
	'12	65	8	8	3	5	7	2	6	7	6	4	6	3
	증감 (%)	+4.6	-75		+100	-40	-14.3	+200	+83.3	+42.9	-33.3		-50	+66.7
상근·영역	'11	-	-	-	-	-	-	-	-	-	-	-	-	-
	'12	1	-	-	-	-	1	-	-	-	-	-	-	-
	증감 (%)	-100	-	-	-	-	-100	-	-	-	-	-	-	-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12월 >

계절별로 보면 가을이 36.8%(25명)로 제일 많고 다음은 봄(23.5%), 여름(22.1%), 겨울(17.6%) 순으로 발생하였다. 월별로 보면 9월, 10월이 가장 많고 다음이 4월 순이며, 5월, 7월, 8월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가을철에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계절과 자살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없으며 그 관계성도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다.

나) 발생시간

자살자들의 자살기도 시간을 보면 다음 과 같다.

< 표 3 - 7 > 자살사고 발생 시간 분석결과

구 분		계	일과시간(52.9%)			일 과 후(47.1%)			
			08:00 ~12:00	12:00 ~13:00	13:00 ~17:00	17:00 ~21:00	21:00 ~24:00	00:00 ~06:00	06:00 ~08:00
계	인원	68	14	5	17	17	2	7	6
	%	100	20.6	7.4	25	25	2.9	10.9	8.8
현 역	인원	68	14	5	17	17	2	7	6
	%	100	20.6	7.4	25	25	2.9	10.3	8.8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 12월 >

자살기도 시간을 주간(일과중)과 야간(일과후)으로 구분, 비교하여 보면 예상과는 달리 야간에 발생한 것이 47.1%이고 주간에 발생한 것이 52.9%로 주간(일과중)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살이 야간보다 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병사들의 임무별 근무장소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간부들의 완벽한 통제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영외에서의 자살이 늘어나는 추세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야간의 경우에도 취침시간 이전과 기상시간 이후에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직사관 혼자서 많은 병력을 통제하기 어렵고 병사들도 자유시간 등으로 간부들의 눈을 피해 자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쉬운 것으로 해석되며 취침시간의 경우 불침번에 의한 병력통제가 용이하여 자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다) 발생장소

자살자들의 자살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 8 > 자살사고 발생장소별 현황

구 분	계	영 내(39.7%)					영 외(60.3%)				
		화장실 / 사위실	야산 훈련장	사무실 / 생활관	초소	창고 / 기타	자가 / BOQ	야산	숙박 업소	교량 / 기타	
계	인원	68	7	5	3	1	11	10	8	10	13
	%	100	10.3	7.4	4.4	1.5	16.2	14.7	11.8	14.7	19.1
현역	인원	68	7	5	3	1	11	10	8	10	13
	%	100	10.3	7.4	4.4	1.5	16.2	14.7	11.8	14.7	19.1

< 통계청 및 육군자료 ` 12. 12월 >

자살장소는 영외지역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간부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인 영외에서 휴가, 외출·박시 자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외에서도 자가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접근성이 가장 손쉬운 장소인 것으로 해석된다.

라) 자살방법

자살자들의 자살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9 > 자살사고 자살방법별 현황

구 분		계	총 기	투 신	목 맵	음 독	분신/기타
계	인원	68	9	12	43	2	2
	%	100	13.2	17.6	63.2	2.9	2.9
현역	인원	68	9	12	43	2	2
	%	100	13.2	17.6	63.2	2.9	2.9

< 통계청 및 육군자료 ` 12. 12월 >

자살방법은 목땀(의사)에 의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자들이 영내·외에서 자살 시도 시 가장 손쉬운 도구(전투화끈, 허리띠, 넥타이 등)를 이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 연예인 등의 자살방법인 목땀에 의한 자살이 베르테르 효과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마) 자살 원인별

자살자들의 자살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0 > 자살사고 자살원인별 현황

구 분		계	부대관계(33.8%)			개인관계(66.2%)						
			근무부적응	업무부담 / 미숙	선임병 황포	가정환경	임세비관	여자관계	채무고민	지병 / 허약체질	처벌우려	성격결함
계	인원	68	12	8	3	16	15	4	3	3	2	2
	%	100	17.6	11.8	4.4	23.5	22.1	5.9	4.4	4.4	2.9	2.9
현역	인원	68	12	8	3	16	15	4	3	3	2	2
	%	100	17.6	11.8	4.4	23.5	22.1	5.9	4.4	4.4	2.9	2.9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 12월 >

자살원인은 개인관계가 66.2%를 차지하여 부대관계 33.8%로 인한 자살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자살 중 부대관계보다 개인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군 조직의 특수성에서 볼 때 특이한 것이지만 이는 주로 입대초기 군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이 많이 자살하던 과거와는 달리 간부들의 자살이 점차 늘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는 가정환경과 임세비관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간부자살이 20명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주로 채무관계, 처벌우려, 여자관계 등으로 인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학력별

자살자들의 학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1 > 자살자 학력별 현황

구 분		계	고 퇴	고 졸	대재/퇴	전문대졸	대졸이상
계	인 원	68	4	17	34	6	7
	%	100	5.9	25	50	8.8	10.3
현역	인 원	68	4	17	34	6	7
	%	100	5.9	25	50	8.8	10.3

<통계청 및 육군자료 ` 12. 12월>

학력으로 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전체학력 구성비 6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의 학력이 대부분 전문대 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간부들의 경우 대부분이 대재이상이므로 고학력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살자의 경우 학력의 높고 낮음에 큰 의미 없이 골고루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성격별

자살자들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2 > 자살자 성격별 현황

구 분		계	내성성격(80.9%)				외향성격(19.1%)			
			온순	우울	비사교적	고독	원만	쾌활	명랑	반항적
계	인원	68	26	24	4	1	7	4	1	1
	%	100	38.2	35.3	5.9	1.5	10.3	5.9	1.5	1.5
현역	인원	68	26	24	4	1	7	4	1	1
	%	100	38.2	35.3	5.9	1.5	10.3	5.9	1.5	1.5

< 통계청 및 육군자료 ` 12. 12월 >

자살자의 성격을 보면 내성성격이 80.9%로 외향적인 성격에 비해 자살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적인 성격 중 특히 우울증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높아 군에서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장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 및 상담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군에서도 최초 입소단계, 훈련병, 자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에서 성격검사, 자살진단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 지휘관에게 전파함으로써 자살사고 예방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내성적 성격을 소유하거나 우울증을 갖고 있는 장병들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 복무기간별

자살자들의 복무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3 - 13 > 자살자 복무기간별 분석 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개월 ~ 6개월	6개월 ~ 1년	1년 ~ 1.5년	1.5년 ~ 2년	2년 ~ 3년	3년 이상
계	인원	68	25	11	13	5	2	1	11
	%	100	36.8	16.2	19.1	7.4	2.9	1.5	16.2
현역	인원	68	25	11	13	5	2	1	11
	%	100	36.8	16.2	19.1	7.4	2.9	1.5	16.2

< 통계청 및 육군자료 `12. 12월 >

군 생활 1년 미만의 장병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임병보다 후임병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의 원인중 부대적인 관계(군무부적응, 선임병 횡포, 업무미숙 등)가 대부분 후임병에 의한 자살이 많고 개인관계에서도 후임병들이 훨씬 더 적응하기가 힘들며, 선임병의 경우 개인적, 부대적 관계에 있어 힘든 시기를 잘 견뎌왔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역한다는 기대감으로 자살에 이르는 경우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장 군 자살사고 위험요소

제 1절 요소별 분석결과⁸⁾

군의 자살위험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먼저 정신 병리적 요소, 영양성 요소, 생물학적 요소, 상황적 요소(내무환경), 유전적 / 가정 환경적 요소문제는 장병들이 사회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살 위험 요소(소인요소)를 안고 군 조직에 들어온다. 즉,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은 자살의 주요 위험 요소이다. 2010년 부천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3%의 학생들이 우울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정신병리적 요인을 가진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대로 군에 입대한다.

둘째는 생물학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가 세라토닌액이다.

자살자들의 뇌를 해부한 결과 세라토닌이 뇌에서 평균치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세라토닌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충동성과 폭력성이 있다. 그들의 다혈질은 위기 앞에 참지 못하고 쉽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버그(Asberg)는 낮은 양의 세라토닌 수치를 가진 우울증 환자 가운데 40%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는 유전적 또는 가정적 요소이다. 유해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살이 한 집안에서 반복된다는 주장이 있다. 부모의 별거, 이혼, 폭력 등으로 얼룩져 있는 역기능적 가정환경이 높은 자살률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Smith)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의 자살률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아버지가 없이 자란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보다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이 더 높았다.

8) 윤주대, [군 조직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이처럼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장병들이 위기대처 능력과 인내심이 부족해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고 있다. 분명히 유전적 / 가정환경적 요소는 자살사고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 정신환자가 많은 가정은 폭력적이고 역기능적이다. 이러한 가정의 역기능성은 자녀의 정상적인 정서적 성장을 방해하여 정신질환이나 자살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는 장병들의 취약성 요소이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서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자살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다.

이것을 취약성(Vulnerability)요소라고 부른다. 이 취약성 요소들은 인간의 외적(가혹행위, 구타 등) 혹은 내적(성격, 품성)요소들은 모두 포함한다. 이 취약성 요소는 인간의 외·내적 요소에 대한 각 개인의 충격흡수능력 혹은 수용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취약성 요소는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의 내성(耐性)여부를 보여준다. 신세대 장병들에게는 위기대처 능력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6.25 세대라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요소이다. 장병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무환경을 빨리 개선해 주어야 한다. 미군의 경우는 한 내무실에 4명이 생활한다.

4명이 지내기 때문에 서열을 외울 필요도 없고 내무반의 긴장이 별로 없다. 이등병 376명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106명이 선임병들의 통제와 인격모독과 따돌림 그리고 가혹행위라고 답변했다. 이등병들에게 훈련이나 일과시간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지 일과종료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두워진다. 지옥같은 생활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게 된다. 일과가 끝나고 쉼의 장소인 생활관이 견디기 어려운 장소라면 그곳은 참으로 들어가기 싫은 도살장과 같을 것이다.

역기능 생활관 문화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순기능 생활관으로 변화시켜 모든 구성원들이 기쁨으로 행복을 나누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 병사가 생활관에서 따돌림을 당해버리면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당한다. 이러한 생활관의 역기능이 자살을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활관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살사고는 비전투에 의한 전투력 손실 측면도 있지만 한 생명이 사라짐으로써 부모에게 불효(不孝)를 저지름은 물론 가족들과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정신적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특히 핵가족 하에서 대(代)가 끊겨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어떤 사고보다도 군, 가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저지되거나 차단되면 욕구불만, 갈등, 긴장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그리고 욕구가 저지당하는 경우에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자살이란 이들 각종 욕구저지에 의한 일탈행동인 것이다.

대체적으로 자살하는 신세대 장병의 대다수는 단일한 동기보다는 개인적 사정과 기타 사회 환경 및 불안요소가 혼재된 상태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새로운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자살을 결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자살사고는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신세대 장병의 자살원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키로 한다.

1) 개인적인 요인

신세대 장병의 자살원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대관계보다는 개인적인 문제가 대부분으로 그 원인은 세상을 허무하게 느끼거나 비관하는 염세주의, 여자친구나 애인의 변심, 지병, 불우한 가정환경, 그리고 초급간부(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부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치 못함으로써 하급자로부터 느끼는 열등감과 유흥비 탕진 및 증권투자 실패에 의한 부채문제가 자살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기에 군에 입대한 신세대 장병들은 어릴 때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없고,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관계로 정신력이 미약하여 군 생활 중 어려움에 부딪치면 쉽게 좌절하게 되고, 더 이상 노력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또는 자살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는 그릇된 사고(思考)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자살자들의 유서에서 보듯이 자신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등 자존감 상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기의 젊은 장병들에 대한 관심이 중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병영환경 요인

가) 복무염증

복무염증이라 함은 자유분방한 사회생활에서 군이라는 통제된 사회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사회활동이 정지되고,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오는 불만, 상급자와의 의견충돌에서 오는 갈등 인간적·인격적 모독에서 받는 불만과 스트레스, 병 상호간 심리적 갈등문제에서 비롯되는 증상이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저지되거나 차단되면 욕구불만, 갈등, 긴장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 조직내에서 그들의 각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저지 또는 억제될 때 그들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되고, 군복무시 통제된 병영생활과 장병상호간 심리적 갈등, 그리고 상의 하달식의 획일적인 지시는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스트레스의 연속은 복무염증을 초래하여 결국은 자살의 요인과 관계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처벌우려

당직근무나 초병 근무태만, 그리고 부대검열이나 평가에 있어서 자신의 불찰로 인하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 이에 대한 자책과 처벌에 관한 두려움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다) 자살과 관련된 문제점

군인 자살 유인 요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앞의 실태분석과 자살자들의 생활환경 자료 그리고 자살자의 동료의견 등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군내 인명경시풍조와 이기주의 만연 및 효(孝)사상 실종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지나친 경쟁사회의 전개는 인간관계를 상실시키고, 인간경시 풍조를 낳았다.

최근에는 구조 조정에 의한 실직, 가정 파탄으로 인해 자살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열풍(自殺熱風)이 확산됨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입대 후 사회적 조류에 편승하여 우발적인 자살을 시도하고, 또한 신세대들이 군의 중추적 전투력이 된 현시점에서 이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사고(思考)의 단순화와 공동의식 희박 및 의무감·책임감 결여, 인내심 부족으로 인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을 겪거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방법인 자살을 택하게 된다.

4) 정신적·신체적 결격자 입영

정신쇠약,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결격(缺格)이 있거나, 허리디스크 등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어 군 생활을 하는데 부적합한 대상은 모병 및 징병검사 과정에서 선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그대로 입영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상태 하에서 자살로 이어진다. 이는 앞의 실태 분석에서 자살자 전체의 13.9%가 신병비관으로 자살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5)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환경 미흡

가) 스트레스 누적

신세대 장병들은 부대라는 새롭고 통제된 생활환경 속에서 업무, 계층간 갈등, 비인간적인 모독 행위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등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형식적인 면담 및 전문상담 기법 부재

장병들에 대한 신상파악 제도는 부대전입시 초도 면담, 일정한 기간별 정기 면담, 필요시 수시 면담, 그리고 군의 초급자들에 대해 조기 적응 및 원활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 결연 및 의형제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면담관은 부대 및 대대급 단위 주임원사 그리고 행정관 등이 있어 면담 체계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대의 기본업무 등으로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상담 기법 부재로 인하여 자살 위기 장병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들을 개방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의사소통 제한

조직 내의 행동을 활성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간관계 및 충분한 대화에 의한 상호간 이해가 필요하다. 군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으나 조직의 경직성 및 획일성에 의하여 일방적인 상의 하달식의 의사 전달이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현 상태에서 하급자들의 의견이나 견해는 존중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차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면담이나 상담에 있어 창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으나 장병 자신이 군 조직이 위계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고민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장병이 대화하고 싶은 대상은 동기, 동료, 그리고 고참병, 계층상의 하급부서장부터 상급부서장의 순으로, 계급과 직책이 높을수록 고층이나 애로 사항에 대한 논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으나 대다수 간부들은 자신이 “장병들의 좋은 상담 대상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간부 중심적인 사고(思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루 빨리 의식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동기나 동료 등이 대화 상대로서 우선 순위인 것은 비슷한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신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 및 각 부서장은 이러한 점을 지휘관리에 충분히 활용한다면, 사고 방지에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살 위기 자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자살자들은 갑자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종자료나 동료 등의 설명을 통해서 볼 때 대체적으로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하고 자기물품을 정리하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자살징후를 보인다. 주변동료 등에게 자살징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자신을 도와주거나 또는 이해해줄 수 있는 상대를 찾기 위함인지도 모르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해 동료나 지휘관 등은 인지능력 및 관련지식 부족으로 위기장병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살자의 대다수인 신세대 장병들은 사회적으로 유입되는 인명경시풍조와 이기주의 만연, 그리고 염세주의, 이성관계, 의사소통 제한, 신병비관, 불우한 가정환경 등 사회적·개인적인 문제와 이에 부가하여 신세대의 성격적인 특성인 인내심 부족에 기인한 복무염증과 더불어 자존감 상실 등 사회적·개인적·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요인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하급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지는 미약한 실정이며, 위기에 처한 장병 상담 시, 간부들이 상담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내담자의 마음을 전면 개방치 못하고 내담자 역시 자신의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담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나 부대의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고려하여, 우선 간부들에 대한 위기상담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 5장 군내 자살사고 예방대책

제 1절 병영 내 스트레스 해소방안⁹⁾

1) 부대 외적 스트레스의 감소방안

부대 외적 스트레스는 부모와 애인, 친구 등과의 갈등과 접근 차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이란 군 조직 외부의 인간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대원의 적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지원의 강화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방안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도구적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손상을 약화시켜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실 군 조직에서 사회적 지원의 강화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병사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다. 즉, 병사들의 군 조직 외에서의 인간관계와 비공식 조직과의 관계가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부모, 애인, 친구와 같은 사회적 지원 세력의 적절한 활용은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고 나아가 자살, 군무이탈과 같은 군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원의 강화를 통한 부대외적 스트레스 감소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가족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자.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몸을 담았던 사회이자 모든 사랑의 근원지였던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 가족이 오히려 장병들에게는 국가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더 절실한 수호의 대상일지도 모른다.

9)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2003.

이러한 가족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생기면 스트레스와 직결된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원들과의 일대일 면담시간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면서 개인의 신상문제 및 가족상황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하며 유사시 지휘관으로서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배려와 관심을 보여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예방대책이 마련되도록 각급 부대 지휘관의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함께 부모가 모범적인 생활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병사들의 휴가, 외출, 외박 등 출타 시 가정으로의 복귀기간 중 세심한 관찰 결과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부대로 연락을 취해 가정과 부대의 하나된 예방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살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극단적 절망감의 표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서적 지지체계가 제 기능을 하면 자살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인 지지체계를 제공하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족 기능의 문제가 있으면 전문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족상담과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경제적 형편을 살펴보자. 우리 주변의 장병들을 살펴보면 불우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병사들의 경우 특별히 군복무 중에 받는 수당이나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다가 입대 전 일정소득을 벌어들여 가정 생계에 도움을 주어 온 경우에는 다른 부대원들보다 그의 가정 생계 문제로 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셋째, 부대 외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자. 사병이나 군 생활 경력이 짧은 간부들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서보다 부대 외적인 인간관계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대 외적인 인간관계도 군 생활을 하는 군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부대 외적인 일이어서 부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다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휘관을 위시한 간부들은 평소에 부대원 각자의 신상명세서 등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고, 휴가나 외박기간 등에 어울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고 위험이 없더라도 평소에 연락을 취해 동태와 관계 사항 등을 점검하여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2) 부대 내적 스트레스의 감소방안

부대 적 차원에서 신체적 저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면과 적당한 운동, 균형 있는 영양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첫째, 만성적인 수면장애는 육체적인 피로와 더불어 심리적 피로를 가중시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훈련이나 경계근무 후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휘관이 항상 감독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긴장을 해소시켜주고 필요한 에너지를 축적시켜 준다. 신체는 운동을 통해 근육이 단련되고 심장혈관계 및 순환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되어 스트레스나 질병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운동의 유형은 주로 걷기, 조깅, 축구, 족구, 농구, 헬스 등 적어도 하루에 20~30분 동안 근육 적절하게 수축과 이완운동을 하면 효과적이다.

육체적 운동은 우울, 불안, 그리고 분노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줄여주며 인지적 기능과 자신감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며,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균형 있는 영양분의 섭취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데도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병사들이 좋아하는 음식류는 물론이고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메뉴개발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식당을 밝고 편안하게 하여 병사들이 마음 놓고 천천히, 즐겁게,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당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주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수적이라 하겠다.

2) 자살예방 프로그램

우리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자살에 있어 이를 적용하여 예방단계에서 인명손실을 막는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자살자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군 전력의 손실도 막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가) 자살사고 예방 교육체계 정립

현재 육군에서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간부들을 육성하는 학교기관과 야전부대 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관 양성과 자살예방 교재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실무부대에서 “자살예방 교육수료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 장병이 자살예방 효과 및 Gate-Keeper(자살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5 - 14 > 과정별 자살예방 교육현황

구 분	양성교육		보 수 교 육				부대교육	
							소집	자대
장 교	생도/후보생 교육 3학점이상		초군 12H	고군 8H	육대 8H	대대장반 16H	순회 교육	부대 관주 연4H
부사관	신병교육 4H	후보생 8H	초급반	중급반 12H	고급반 8H	관리자반 16H		
병	신병교육 4H		분대장반 (Gate-Keeper) 8H				집중교육 연4H	

< 육군본부, 자살, 「예방할 수 있다.」 2011 >

< 표5 - 15 > 계급별 자살예방 교육현황

구 분		장 교 / 부 사 관	병 사
양성 교육	목표	▪자살심리 이해 및 상담 기초소양 구비	▪자살심리 이해 / 인식변화
	시간 편성	▪육사,3사 생도과정:상담학(교양 3학점), 전공과정 ▪학군,학사,간부사관 : 상담 관련과목(3학점 이상) 이수자 선발 가산점 반영 ▪부사관 양성과정 : 자살이해 / 상담소양(8H)	▪사생관 정립 / 자살이해 : 4H ▪교안 육본 작성 / 제공 ▪교관 : 군종장교 / 주임원사
보수 교육	초군 / 중급	▪목표 : Gate-keeper / 상담능력 구비	<분대장반> ▪목표: Gate-keeper능력구비 ▪교육시간 : 8H -죽음에 대한 이해(1H) -죽음을 알면 자살할 수 없다(1H) -Gate-keeper 교육(2H) -자살에 대한 이해(2H) -동영상 시청/감상발표(2H) ▪교관 : 군종 /수사관 /주임원사
		▪교육시간 : 12H - 상담기초(2H) - 상담기법(4H) - 인성검사 해석/활용(2H) - Gate-keeper(2H) - 문제유형별 상담사례 연구(2H)	
	고군 / 고급	▪교육시간 : 8H - 상담기법(2H) / 유형별 상담사례실습(2H) - 관심병사 식별기법(2H) - Gate-keeper(2H)	
	대대 장 / 관리 자	▪목표 : 상담지도 및 응용능력 구비	
▪내용 :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 과정(16H)			
부대 교육	목표	▪전 장병 Gate-keeper 능력 구비	
	소집	▪국방부 소집(27H) : 자살예방 교관요원 ▪상담학회 부대별 순회교육(4H) : 전간부	▪집중교육 : 4H(집중정신교육시) ▪교관 : 군종장교(전문교관)
	자대	▪시간 : 4H(부대관리주에 1H씩 4회 교육) ▪교관 : 대대장급 지휘관 / 헌병 전문교관 / 전문교관 *미참석자 : 녹화 영상자료로 재교육	

< 육군본부, 자살, 「예방할 수 있다.」 2011 >

나) 지휘관 및 각 부서장에 의한 自殺防止 프로그램

우선, 지휘관과 각 부서장은 ‘자살징후’ 인지교육 자살징후 인지교육이란 특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자살자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고 자살 현상, 자살자들의 심리와 징후, 조기발견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본형식은 첫째, 흥미 있는 자살사례 및 자살관련 통계 소개 둘째, 자살의 역사적 배경 및 이론과 더불어 자살에 대한 편견, 징후 그리고 보고 및 이첩체제와 예방방법 셋째, 자살예방 성공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내용 및 자살방지 전반에 걸친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징후(徵候)를 인지(認知)하고 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징후는 주위에서 세심하게 관찰해야 감지할 수 있고, 감지하였으면 즉각 조치해야 한다.

자살전의 징후는 미국의 심리학자 링겔 박사의 설명대로 분명히 증상 및 변화 자살기도자의 증상으로는 첫째, 열등감 및 불신으로 체념 상태에 빠지는 경우로써 정신활동이 지극히 협착화(狹窄化)되는 증상을 나타내고 둘째, 억눌린 공격성을 표출하며 셋째, 공상(空想) 속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죽음에 강하게 매력을 느끼면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징후들은

- ① 직·간접으로 죽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서나 이별의 예고 표시를 하는 등의 자살의 의사를 표시한다.
- ② 매사에 흥미를 상실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행동이나 표정이 밝지 않고 항상 우울해 하며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잘 놀라거나 안절부절하고, 식사거부, 잠을 못 자기도 하는 등의 의지력(意志力)이 약화된다.
- ③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먼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개인비품이나 관물함을 정리한다. 속옷을 갈아입고 이발 등을 하며, 평소 아껴온 물건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주변을 정리한다.
- ④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일이나 세상사를 운명이나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등 무책임성이 나타난다.

⑤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등 현실회피나 죽음에 대하여 합리화하며, 세상을 저주하고 삶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 등 세상을 비관하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한다.

< 표5 - 16 > 단계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구분	방지단계	프 로 그 램
예 방	보편적 예 방	•보편적 예방 프로그램 연구 •자살방지 교육 및 홍보, 자살 현상 교육 •자살도구나 수단 접근 차단
	선택적 예 방	•개인적 차원 : 자살징후 인지교육(장병 대상) 우울증 조절 기술, 스트레스 통제 및 조절 기술 •사회적 차원 : “부대의 가정화” 분위기 조성 자살방지 Link시스템(간부· 동료· 군종장교 및 군의관) 구축 종교활동보장, 일과후 오락시설이용 및 운동시간보장, 취미생활보장 및 신세대 문화공간 조성, 불우 사회시설에의 자원봉사 등을 통한 자존감 형성 •정책적 차원 : 자살 접근 용이성 차단, 위험환경 안전점검
	지시적 예 방	•개인적 차원 : 자살 징후의 요인 분석, 우울증 환자 발견 및 치료,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대처 훈련 •사회적 차원 : 부대내 역기능성 파악 및 정상화 훈련
치 료	위기개입	•위기 개입 : 위기 상담 (자살방지 전문요원 훈련을 받은 후 실시 가능) •사회적 개입 : 범법 행위의 처벌
	표준치료	•의뢰자원 및 후송체계 숙지/군의관, 군종장교에 의뢰치료
유 지	사후예방	•자살요인의 생태학적 분석 등 복합적인 분석 •심리부검 • 사후 설명회 • 사후 예방활동 지원
	사후관리	•자살환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적 치료 순응여부확인 •소속대원 주의사항 교육 • 정기적 사후 상담 조치 •자살 시도자의 복귀후 관리체계 확립 •정서환경을 해치는 요소 파악 후 예방대책 마련

< 육군본부, 자살, 「예방할 수 있다.」 2011 >

전체적인 자살방지 상황에 대해 군종장교와 군의관의 조언을 받아 부대내에서 자살방지 프로그램 자살예방단계의 전략은 예방, 치료, 그리고 유지라는 단계로 구분하고 예방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예방, 개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심리적 훈련기술을 시키는 지시적 예방이 있다.

둘째로, 지휘관이나 각 부서장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군종장교나 군의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모든 부대원들이 자살에 내성(耐性)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울증이나 분노의 통제방법, 스트레스 해소기술 등 정신건강 스펙트럼 미국 의학 연구소에서는 정신건강에 의한 자살방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신적인 문제발생 전후에 따라 예방과 치료의 단계를 구분하고 치료이후는 유지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정신건강 개입 스펙트럼 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스펙트럼 상에서 지휘관이나 각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살방지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택적 예방과 사후예방 및 관리이며, 군 조직내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택적 예방만이 자살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

미군 역시 선택적 예방차원에서 자살방지 Link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 공군은 장병 자살방지를 위해 동료, 자살방지 전문요원, 성직자, 군의관 등을 통한 Link 시스템을 구축, 각 단계별로 구분하고 서로 중첩하여 자살 기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토록 하고 있다.

다) 동기생 및 내무반장 그리고 동료전우에 의한 自殺防止 프로그램

동기생과 분대장, 그리고 동료 전우들은 교육을 통해 자살징후 인지 방법을 터득하고 생활관 내의 자살 위기자들을 판별하여 전우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임을 명심하고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 자살 위기자들의 비정상적인 우울증상과 고문관 행동에 대해 폭력이나 폭언은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분대장의 경우 생활관의 정서적 환경 조성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기적 권위주의에 바탕을 둔 서열 중시와 하급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결국 생활관의 정서적 치료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따라서 모든 생활관 구성원들이 일과 이후 생활관을 내 집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대장은 스스로 생활관의 역 기능성을 파악하고 소외되거나 도태되어 있는 병사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보고해야 한다.

3) 우려자 식별 / 관리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가) 과학적인 검사 수단 개발과 개선

육군은 새로운 인성검사 도구를 병무청, 양성기관, 자대용으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KIDA를 통해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 전까지는 현행 KMPI 인성검사 및 간편 인성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군 스트레스 진단척도를 개발중으로 전산화 체계로 작업중에 있고, 육군본부에서는 자살 안전지표를 개발하여 자살우려자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통계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된 자살우려자 관리를 실시중이다. 또한 육군훈련소 등 신병양성기관의 병영생활지도 기록부를 내실화 작성할 수 있도록 “훈육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부대별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된 신상파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나) 제대별 입체적인 식별 노력 제고

전입신병들의 조기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 전입시 “신상파악 위원회”를 운용하여 권장하고 있으며, “신상파악 위원회”는 주임원사, 군종장교, 군의관 등과의 합동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살 또는 사고우려자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체계는 또한 간부들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초급간부(임관 5년 이내) 신상파악을 의무화하고, 우울증·악성부채·사생활 문란 간부에 대하여 멘토(후원자)를 지정하고 지휘관과 상급자들에 의해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제대별 월 1회 실시하는 부대안전평가시 교육훈련 시스템을 적용하여 안전평가 세부과제별 “표준실습계획표”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 / 차단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다) 자살우려자 보호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자살우려 간부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인터넷상의 무료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例 : Hi-Seoul 정신건강[www.suide.or.kr] 등)를 활용하고 현행 미군들이 운용하고 있는 간부 “정신건강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신질환자 입원 / 분리요건 완화를 위해 정신과 입원 부모 부동의시 정신과 외래진료 활성화와 긴급 입원제도(3일 이내)를 검토하고 정신과 군의관 진단에 의거 민간병원 진료를 의무화(병가)하는 등 완화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계별 부적응 예견자 차단을 위해 징병검사상 정신과적 질병 / 심신장애 판정기준을 개선(3급→4급)하고, 신병교육 수료전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제도 도입과 자대에서 복무시 정신과 군의관 소견을 삭제하여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전역단계시 보충역 편입 처분을 추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칭 “비전센터”를 운영하여 부적합처리 비대상자이나 복무 부적응자 또는 기피자 등 “계속 복무” 판정병사들의 적응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자살우려자는 주기적인 면담으로 안정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혼자서 아픔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때 면담은 시간과 장소, 형식에 구애없이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지휘관(자), 군종장교, 부사관 등이 순찰을 가장하여 근무지, 훈련장 등을 방문해 자살우려자를 격려하는 것은 면담의 형식을 자연스럽게 구현시켜 매우 효과가 크다. 자살사고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살 충동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면담 및 관찰을 통해 자살우려자의 애로사항 해결 및 새로운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라) 부모·애인·친구와 연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자살우려자가 평소 신뢰, 의지하는 부모, 애인, 친구 등에게 자살우려자 관리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여 부대와 연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부대 방문을 요청하여 자살우려자가 기분 전환 및 자살우려자의 군복무 적응 방안을 논의하여 입체적인 신상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자살우려자는 면회, 외출·외박 후 돌발적인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이 크므로 상황 대비 밀착 관찰자 임무 재확인, 지휘관(자)의 지속적인 면담 및 격려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대적 차원의 우선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마) 휴가·외출·외박 등 출타시 관리 대책 강구

자살우려자는 혼자 있다는 고립감에서부터 자살의 충동이 커지게 된다. 부대내에서는 많은 행동의 제약과 주위의 시선, 계급에 따른 행동반경의 제한사항 등이 분산되므로 자살 충동이 다소 줄지만 영외 출타 등 혼자라는 독립적 환경이 조성되면 자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출타시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100일 휴가 출발전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군종장교 편성 제대 지휘관에 의해 사전 100일 휴가 출발 예정자를 월1회 소집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담과 면담, 인성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성교육 중 자살우려자로 판명되거나 징후가 포착되면 군종장교는 해당 제대에 통보하여 지휘관(자)로 하여금 관심병사에 대해 휴가출발 전 격려 및 휴가 중 지속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E-mail을 활용한 휴가, 외출·외박 기간 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다. 자살우려자 및 보호관심병사 출타시 E-mail을 통해 지휘관(자) 또는 상담관이 관심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복귀시까지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고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자살충동을 격감시킬 수 있다. 단 E-mail 주소가 없는 병사의 경우 전화,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휴가 복귀시 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살우려자의 경우 휴가 복귀시 심적 부담에 의해 군무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군무이탈 후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증대된다. 따라서 휴가 복귀시 자살우려자의 부모에게 동행을 협조하고, 부모 동행이 곤란할 경우 친구, 애인, 인근 지역의 친한 동료와 함께 복귀토록 조치하며, 부득이할 경우 자살우려자가 평소 잘 따르는 부대 간부 또는 상담병을 보내 함께 복귀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4) 자살 예방 지원부대의 활동 강화

가) 홍보활동의 활성화

홍보활동이란 국방일보, 국군의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타 계몽행사를 주관하여 각 부대의 장병들에게 각종 범죄 및 사고발생 실태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방법 의식을 고취시켜 각종 사고예방 방법을 지도 계몽하는 활동을 말하며, 방법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활동이다. 이 같은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그 폐해를 홍보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홍보활동의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간행물, 책자, 전단문 등 제작 배포, 방송, 영화 및 슬라이드, 사진 등을 활용한 전시회, TV나 VTR 활용 미디어 교육, 사고 분석 전파, 표어/포스터 경연대회, 방법 상담 등의 방법이 있고 최근 육군 인트라넷 등 전산 업무의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이용될 수 있는 동영상 자료의 인트라넷 게시, 플래쉬 화면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군종병과의 마음그림 검사(Ego-Ok Gram)

과학적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내의 자살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우려자에 대한 다원화 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신상상담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그림 검사(Ego-Ok Gram)를 활용하여 자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검사지는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배포한 검사지와 도표를 바탕으로 우선 신병교육대에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에 대해서는 매 기수 입소 교육 때, 또 보충대로 전입한 보충병에 대해서는 보충병 인격지도 교육 때 전원 실시하고 기간병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지를 각 부대별 배포하여 부대 집중정신교육 기간중에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실시 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 병사를 판별하여 군종부에서 대대장 및 지휘관에게 또 각급 부대 주임원사에게 통보하여 부사관단 계통으로도 관리가 되도록 한다. 또한 부대내 전 군종장교에게 해당 하급제대 관리 대상 병사의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돕는 데 활용한다. 신병교육대와 보충병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각 부대로 그 명단을 월단위로 통보한다.

그리고 일반 병사 중 상담을 요하는 - 앞으로 관리대상 병사로의 발전이 우려가 되는 - 병사도 같이 파악을 하여 수시로 상담 및 관리를 하도록 함은 물론 모든 병사의 마음그림 검사(Ego-Ok Gram)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병사들에게 마음그림 검사(Ego-Ok Gram)결과에 대해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해석결과를 “마음그림 개별 해석”, “직업과 결혼생활”, “개선방안”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 대상 병사로 판별된 병사는 ‘군 생활 정착 지원 개념’으로 관리하고 감시나 차별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상담과 관심을 통해 사고예방의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 군 수사기관 등 첩보 및 정보 수집 활동의 강화

우리나라는 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신고, 고발에 대한 정신과 의지가 약하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회피하고 못 본체 한다. 이러한 의식성향 때문에 첩보 및 정보수집활동은 더욱 어려운데다 헌병, 검찰 등 외부 감찰기관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첩보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방법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헌병, 검찰 등 외부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살사고 요인의 사전 발견과 자살 징후 대한 첩보 및 정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부국 강병의 선진군대

적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방의 의무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못한 남성들 중 군대라는 것에 대하여 일생의 진지한 고민을 한 두번 하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이는 껌 한통을 사며 부가세 10%를 내는 납세의 의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무이자 그들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또 대한민국에서의 군대란 국민의 4대 의무 수준을 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 있을 입영전날 한국의 젊은이들은 퀘퀘묵은 유흥가 어디의 지하 술집 구석진 테이블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버리기라도 할 기세로 술을 퍼부으며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토해내며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혹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익히 들어온 전제가 있다.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 군대를 가건 안가건 못가건 간에 군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거듭할 나이라면 몇 번이나 들어왔을 발언이고 그것은 다른 어떤 발언과 상황보다도 앞선 대전제로 군림하며 군대라는 것에 대한 고고한 차원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어떠한 차원의 정당성과 대전제냐구? 텍스트 그대로 풀어보자. 쉽게 말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강력한 존재론적 논리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군대라는 것이라고 이에 대한 신성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전제의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어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이 말을 타령 삼아 입영 전날까지도 쓰디쓴 술잔을 기울이며 심지어 군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이들까지도 위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한다. 우리나라는 소위 '까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하라면 하란대로 시키면 시킨대로 군소리 없이 하는 걸 좋아한다. 장유유서의 변질된 개념이 자본주의의 신 계급사회에서 소리없이 박제화 되어버렸다. 군대는 계급 사회의 정점이다. 인간이 갖는 모든 가치는 부정되고, 그곳에선 오로지 계급만이 그를 대신한다.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은 거대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있는 군 조직에서 늘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를 쉽게 용인할 만큼 국민들의 마음은 너그럽지 못하다. 징집되어 온 병사들에게 군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조직이다. 편안한 자신의 집과는 달리 집합 시설에 거주해야 하고 행동도 규제되어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성격의 상급자나 동료들과 비좁은 생활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고통일 수 있다. 한편 이들을 통솔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유 임무 이외에 병사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현재의 68만여 명의 병력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정예화 될 것이라고 한다.

병력 감축은 대부분 육군에 해당되고 계획대로라면 육군은 현재보다 18만 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물론 안보 상황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궤도 수정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그동안 국방개혁을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말 ‘818계획’을 위시하여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친 중·장기 국방개혁 추진 계획안들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당국의 의지와 군내 공감대 형성 미흡, 그리고 예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당수의 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군 내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내용들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은 군 구성원들의 전향적 사고와 국민적 지원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군은 성격상 체제 변혁보다는 체제 유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조직이며, 따라서 보수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직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때로는 사고의 틀까지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군이 많이 변화하여 왔다는 점은 군내·외에서 모두 인지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군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군은 항상 과거에 머무는 조직이라는 선입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군을 안타깝게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시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한층 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군과 시민 사회가 상당 부분 유리되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의 폐쇄성 때문에 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과거의 권위 정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과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군을 ‘예외적인’ 또는 ‘특수한’ 사회 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민간의 잣대가 군 조직의 내면에도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군과 시민 사회의 가치가 중첩되면서 군과 시민 사회의 통합이 점차 커져간다는 뜻 일 수도 있다. 국방 조직의 문민화나 군 사법제도 개혁 등에서 보듯이 국방개혁의 방향도 이와 같은 점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정체성과 군 조직이 갖는 특수성이 시민 사회의 가치로만 접근될 수는 없다.

군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존중하되 집단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이다. 군에서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임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상황이나 국가의 비상시에는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바쳐야하는 것이다. 시민 영역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여 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군 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군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훈련장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등 군 시설과 훈련장 확보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군 경계 철조망이 불법

시설물이라며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지역 관할 군 부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 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군사 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육군은 지역 사회와의 통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설과 인적 자원의 공유를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단지 물리적 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시민 사회의 가치와 군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다. 군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사회와의 연결 고리는 필수적이다. 시민 사회 성장의 결과로 장병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병영 내에서의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병영생활에서 불가피하거나 필요악 정도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중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다. 목표 지향적이고 임무 중심적이었던 병영에서 인간 중심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으로만 여겨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변하고 있다. 예컨대 ‘내무반’을 민간의 숙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생활관’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병사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병사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병영 내 부조리의 상당 부분은 병사들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병사들 스스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일과가 끝난 후의 생활은 대부분 병사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지휘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시간대의 생활은 병사들 스스로 꾸려 나가게 되는데 병사들 자신이 과거의 관행과 악습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인간관계와 사기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군이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군 간부들의 역할과 리더십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는 바로 군대의 경험을 통해 형성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병사들은 바로 자신이 복무했던 당시의 상관과의 관계로부터 군 생활의 많은 기억들을 담아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군의 간부들은 바로 군의 거울이다. 군 간부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전역 후에라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군대의 소중한 경험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간부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군 간부들에게는 추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임무는 경감하지 않은 채 병사들의 활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짐은 고스란히 간부들의 몫이 된다. 이는 부대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군 시설 예산은 확보해 놓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존의 관행과 체제는 바뀌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육군의 지휘관, 간부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육군 지휘부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제 6 장 결 론 및 제 언

제 1 절 결 론

자살사고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자살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이기 때문이다. 인재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와 치밀한 프로그램 그리고 동병상련이다.

전우 자살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듯이 자살방지의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서로 마음을 열고 동정심과 인내심을 보인다면 자살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자살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군인의 자살행위는 개인적으로는 “생의 마감”을 의미한다는 단순한 개념에 앞서 그가 속해있는 가정과 군에 슬픔과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군의 비전투손실과 대국민 불신감을 초래하고 나아가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여야 할 사람을 잃는 것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사회에서의 자살보다 그 문제점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군의 자살사고로 인한 대국민적인 대군신뢰도 손실은 물론, 군내의 전투력 손실과 장병의 사기저하 및 군기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자살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과 점검, 교육자료(시청각), 안전학습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명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에 비해 아직까지 군내 인명사고는 늘어만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살자들의 환경적 측면, 즉 입대전의 직업, 종교관계, 생활수준 등 자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각종 통계자

료가 미흡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하지 못하였으며, 사회에서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을 선별하고 군 입대전 확인/조치하는 등의 군으로의 유입차단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군의 자살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반드시 요구되어지나 쉽지는 않으며 비전투손실 예방과 부대의 사기저하 및 국민으로부터 불신 방지를 위해 자살사고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사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자살은 예방할 수 있고 군 전체적인 대응이 되어야 하며, 초기의 손상관리와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최초의 가장 큰 예방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군에 복무하는 모든 장병들이 상호 관심과 격려, 배려하는 마음이 자살사고를 줄이는 가장 큰 첩경이라는 점이 본 연구가 지행하는 목표이다.

제 2 절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군내에서 장병 자살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부대별로 자살예방에 대한 지휘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 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이 실시할 수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병력관리에 대한 간부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살예방관련 간부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군 병영 내에서도 자살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대의 역기능성 제거와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병사 개인적 차원의 자살예방교육과 대책으로 자살징후 인지교육, 자부심 증진훈련, 자살위험요소에 적응력과 내성을 갖도록 하는 내성강화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절실하다.

넷째, 전 장병의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전환과 자살위험병사 보호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앞으로의 자살예방 연구방향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군내 장병의 신상관리 분석 프로그램 보완 및 전문상담관의 능력향상과 자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며, 한국군내의 실질적인 자살예방전략 수립과 적용에 활용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장성대. (2004) 『군내 폭행사과 및 자살사과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 정경대학원 발행, 법학 전공.

박정숙. (2008). 『군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

노수현. (2007). 『육군의 자살사과 예방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발행, 사회복지학 전공

박정혜. (2009). 『군 장병의 자살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김민중. (2008). 『군대내의 집단 여가활동과 자기 결정성 및 집단 응집력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발행, 심리학과 전공

윤주태. (2003). 『군 조직내 자살사과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성대. (2003). 『군내 폭행사과 및 자살사과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 정경대학원 석사논문

이기덕. (2004). 『군인의 자살사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육군본부(2003) 「육군본부. 부대관리 노하우123」

육군본부(2012) 「 2012년 사고예방 지침서 」

육군본부(2002) 「 자살사과 특징 분석」

ABSTRACT

The study on causes lead to suicide of soldiers daring mission accomplishment and prevention measures development

Ko, Dong Jin

Major in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Dept. of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Even though army has put much effort to improve its culture, many accidents have broken out because of physical violence, sexual assault and verbal violence. Therefore, the management of soldier's profile is playing a major role in preventing the accidents, and is becoming more important for solving suicide accidents in the army.

Recently, army has introduced counsel system and vision/green camp to settle such problems. However, even though such systems are in initial stage, they have exposed several problems. For example, there are not enough expertises to settle these problems and soldiers lack awareness of maladaptive soldiers. In addition, most of the executives in the army do not try to resolve problems such as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To settle down the evil customs in the army,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existing management such as searching solution focused on commanders and approaching only in psychological way on suicide issues. Instead, an introduction of a new method that approaches problems with structural, constitutional and cultural way is becoming more important.

Even though many suicide preventing policies have been practiced, death incident due to physical violence and suicide still exist. Especially, such problems have tremendous impacts on newly appointed officer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break the old structure and introduce a multi-angle model which will lead nation, society and soldiers to cooperate and discuss for solution.

[Key words] soldier's suicide, preventing suicide, army culture, soldier profile management